

제 8 회 불조심 여성수필 · 수기 현상모집 / 최우수작



鄭 賢 玉

〈서울 도봉구 번동 463의 50〉

불조심아줌마

이 수기는 본협회가 매년 여성들의 경화사상 고취와 불조심 생활화를 위해 실시한 불조심 여성수필 및 수기 현상모집에서 금년도 최우수작으로 입상된 작품입니다.

이번에 응모된 작품들은 거의가 실제의 체험을 토대로한 수작들로 심사를 맡은 여류작가 鄭然喜여사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수준급이었다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마지막 입상 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무척 고심했다고 그간의 애로를 털어 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입상된 작품들은 여성잡지인 월간 「여원」(7월호)에 게재되어 범국민적인 경화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앞으로 대국민 계도에 널리 활용될 것입니다.

마약 남편이 점심식사를 끝낸 그릇들을 주섬 주섬 쟁반에 담아 챙기고 있는데 가게문을 밀며 한 여인이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밝게 웃어 보이며 인사하는 그 여인은 30대 후반쯤 되었을까?

첫눈에도 하늘색 블라우스에 검정스커트 차림이 무척 정갈한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상냥스럽게 웃고있는 그녀의 표정에 비해 남편의 얼굴은 그리 달가운 눈치가 아니다. 아니 달가운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반갑지 않다는듯이 “아니 아주머니 또 오셨습니까?” 하는게 고작이다.

남편의 그런 태도에도 아랑곳없이 그 여인은 가게안을 휘둘러 보면서 명랑한 소리로 말했다.

“지날때마다 가게가 참 예쁘다는 느낌을 받곤 해요. 두분의 정성이 곳곳에 스며있는 것을 알 수 있을것 같아요.”

나는 그 여인의 시선을 따라 세삼스레 가게안을 다시 한번 휘둘러 보았다.

피노키오. 아기곰. 예쁜 공주님…….

저마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저를 사주세요’ 하는듯 있는대로 한껏 멋을 부리고 있다.

이 가게가 정말 우리 가게라니…… 가슴가득 뿌듯한 기쁨이 솟아올랐다. 결혼후 6년동안, 정말 알뜰히도 아껴가며 살아왔다. 그 보람으로 한달전에 이 가게를 개업할 수가 있었다.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아주머니, 글썄 화재보험 같은건 필요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도 처음 시작이라 아직 돈 들어가는 데가 많은데 화재보험료까지 낼 돈이 어디있어요?”

“불이 난 다음에는 늦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은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일이에요.”

“글쎄 불이 왜 납니까? 불이 뭐 그렇게 쉽게 아무때나 나는건지 아세요? 다 운이없는 사람들이나 어찌다 당하는 일이지 여긴 필요없으니까 그만 가 주세요. 장사하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지. 하루종일 웬 잡상인이 그리도 많은지 걸레사라. 책사라. 양말사라. 신문봐라…… 심지어 떡장수, 오징어장수까지 드나드니 이젠 정말 지쳤다구요.”

남편의 박대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렇수룩에 아주 열심히 화재보험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었지만 남편은 완강히 거절하였다.

하긴 나자신도 화재보험 같은건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 여인의 권고를 받아들일 의사는 없었다.

화재보험이라면 호텔이나 병원등 규모가 큰 시설에서나 필요한 것이고 우리네같이 작은 규모에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것같이 생각해 왔고, 우선 우리는 지금 처음 연 가게의 운영에도 빠듯한 돈을 관리하기에 바쁜 것이다. 하면서도 남편의 완강한 거절은 내가 그녀보기에 미안스럽고 민망할 지경이었다.

그때 엄마손을 잡은 꼬마손님이 들어섰다.

“어서오세요” 남편은 반갑게 인사하며 그 여인을 무시한채 손님에게로 다가섰다.

“다음에 한가하실때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불조심 하세요.”

그녀는 다소곳이 인사하며 가게를 나섰다. 불조심 하세요? 정말 보험 세일즈맨답게 특이한 인사법이구나.

나도 정반을 받쳐들고 나오면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다.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진 뭐 있어요? 좋은말로 거절해도 됐을텐데.” “한두번 찾아온게 아니야, 벌써 세번째라구. 안한다고 했으면 됐지 왜 귀찮게 자꾸만 찾아오는지 모르겠어.” 가게문을 나서자 저만큼 그녀가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조금 앞서 그녀 앞을 걸어가던 젊은 사내가 두

심스럽게 담배꽂초를 길에 집어던졌다.

불도 끄지않은 꽂초는 보기싫게 길에 떨어져 별정계 타고 있었다. 그때 재빨리 그녀가 다가가 구두끝으로 담뱃불을 눌러 끄는것이 보였다. 그러더니 얼른 주위 길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었다. 그 행동이 어찌나 자연스러웠는지 어찌면 몸에 밴듯이 느껴졌다. 나는 갑자기 이 여인에게 호감이 느껴졌다. 입으로만 화제에 대한 경계심을 얘기하는 직업적인 세일즈맨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철저히 실천하는 성실성을 이 작은 행동에서도 알 것같았다.

또한 정갈한 옷차림이나 맵시있는 걸음걸이에서도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나가는 노력의 흔적을 엿볼수 있는것 같았다.

“저…… 아주머니!”

내가 따라가면서 부르자 그녀가 돌아보았다. 자신을 부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자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다.

나도 따라 웃으며 웬지 이 여인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원래 내성적인 성격탓도 있지만 이 동네에 이사온지 얼마되지 않는 나는 사실 말벗도 아직 없었다.

“시간이 있으시다면 저희집에서 차한잔 매접하고 싶은데요.”

의외의 내 말에 그녀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었다. 집에 들어서자 마당에서 안집의 정호와와 집짓기를 하며 놀고 있던 딸애가 조르르 달려왔다.

“아빠 점심을 갖다드리고 오는 길이었어요. 한푼이라도 절약해야 하거든요.”

커피에 설탕을 넣으며 내가 말했다. 조출한 단간방이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나의 보금자리이다.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아이 교육도 제대로 시켜야지요. 아까 남편이 보험에 들기를 거절한건 한푼이라도 아껴야 할 형편 때문이었어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진 마세요.”

“잘 알것 같아요.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

요. 처음 가게를 열고 아빠와 아이와 함께 일하나 꿈에 부풀어 있었는지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웬지 가라앉아 보였다. 옆에서 딸애가 커피를 달라고 졸라댔다.

“넌 우유를 마셔야지, 애들이 커피마시면 몸에 나빠요.”

내가 타일렀지만 아이는 우유보단 커피가 맛있다고 자꾸만 졸라댔다. 내가 야단을 치자 아이는 시무룩해졌다. 그 여인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이상하게 커피를 좋아해요. 우리 딸애도 내가 커피를 마실때면 곧잘 졸라대곤 했죠.” 그녀의 눈가에 금새 이슬이 고이는 것을 보고 나는 영문을 모른채 당황했다.

“미안해요. 아이들만 보면 그 아이 생각이 나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그녀가 얇게 웃었다.

“아이가…… 어떻게 됐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다시 눈물이 고여오는 그녀의 눈을보며 나는 공연한걸 물었구나 하고 이내 후회했다. “제가 괜한 질문을 했군요. 말씀 안하시기도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얘기하고 싶어요. 처음엔 아무에게도 얘기하고 싶지않은 쓰라린 심정이었지만 나 얘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젠 기꺼이 들려드릴수 있어요.”

“모든게 불 때문이에요.” 그녀는 서서히 얘기를 시작했다.

“일곱살때였어요. 정월 대보름이라고 오빠와 동네아이들이 강통에 불을 담아 신나게 돌릴 때마다 불은 허공에 원을 그리며 날았죠.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서움과 회열에 몸을 떨었어요. 한번만 돌려보자는 내말에 오빠는 너는 아직 어려서 할수 없다며 혼자만 놀았죠. 어찌나 불놀이를 하고싶었는지 그날밤 다들 잠든 틈을 타서 저는 살그머니 뒷걸음으로 나갔죠. 붓집장사로 부터 포목점을 경영하기까지 자수성가하신 아버지 덕에 우리집은 근동에서도 제일가는 부자집이

였죠. 아버지 구두쇠로도 소문이 자자하셨어요”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날 밤 성냥불을 그어 델 때마다 그 아름다움에 오싹오싹 소름이 들었죠. 성냥 한통을 켜 많이 비우고 닳았 때였어요. 어디서 군밤을 구울때 처럼 탁 탁 튀는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버럭 겁이났어요. 허겁지겁 내방에 들어와서 이불을 뒤집어쓰곤 숨을 죽였죠.

이유도 알수 없는 눈물이 불을 타고 줄줄 흘렀어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깜박 잠이 들었을까? 매캐한 연기와 아우성소리에 잠이 깨었을 때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커다란 몸이 보였어요.

이불에 들들말려 아버지의 어깨위에 얹힌 순간 들려오던 식구들의 울음소리, 불끄는 소리, 아우성소리……

겨우 식구들의 목숨은 건졌지만 집과 점포는 모두 재가 되어버린 뒤였어요.

폐허 위에서 아버지는 울음인지 웃음인지 께이 께이 이상한 소리만 내실뿐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셨죠. 결국 몰락한 집안에서 술만 마시던 아버지는 이내 합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죠.”

싸늘히 식은 커피잔을 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뉘 엄마가 행상으로 꾸러가시는 생활은 말이 아니게 어려웠어요. 어느날 학교에 갔었던 언니가 눈이 퉁퉁 부어서 돌아왔을때 납부금을 내지 못했다고 되돌려 보냈다는 말을 들으신 어머니는 한숨만 내리쉬셨고, 언니는 무서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면서 악을 쓰듯 말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불을 내지만 않았어도 우리 이렇게 되지 않았어” “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의 손이 언니의 뺨을 향해 날았지만 난 지금도 언니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떨리는 그녀의 음성을 들으며 내 눈에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러나 불이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가는 일이에요.” 그녀가 들려준 다음 이야기는 대강 이러했다.

그녀는 결혼하여 나처럼 알뜰이 저축한 돈으로 양품점을 차렸다는 것이다.

그녀가 살던 건물은 점포에 방 하나씩 달려있는 가게가 즐지어 있는 연립상가 같은 것이었다고 한다.

딸 하나를 낳고 오순도순 살아가던 그녀에게 불은 또다시 그 무서운 헛바닥을 넘실거렸다.

화재의 공포를 아는 그녀는 남편을 설득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였고 항상 불조심을 해왔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친정어머님이 편찮으시다는 울케의 전화를 받고 남편과 딸아이를 남겨두고 지방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가서 하룻밤을 잔 것이 영영 마지막이 된 것이다.

라디오를 통하여 화재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는 이미 남편도, 아이도, 집도 재로 화한 뒤였다고 한다.

부실공사가 원인이 된 누적으로 인하여 한밤중에 일어난 화재는 삼시간에 그녀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이럴수가 있을까? 불이 이렇게도 내게 가혹할 수가 있는 것일까?

불·불·불·거의 미치다시피 된 그녀는 드디어는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웃들에 의해서 구조되게 되었다. 허탈감에 빠져있던 그녀는 점차 자신에게 닥친 모든 불행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아버지의 죽음과 가정의 몰락, 남편과 아이의 죽음, 이 모든것이 불로 인하여 일어난 엄청난 비극이 아니었던가! 그녀는 그녀 자신이 겪은 불행을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도록 막는 일에 평생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일만이 불로 인해 죽어간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보험회사는 화재후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녀는 굳이 화재보험회사에 입사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보험의 필요성과 불조심의 생활화를 역설했다.

“‘불조심 하세요’가 저의 인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저를 불조심아줌마라고 부른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었다. 그 아줌마가 돌아가고 난후 나는 세삼 불의 무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남편과 아이와 전재산이 갑자기 내앞에서 사라진다면?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었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수많은 화재소식을 접하면서도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화재후의 소식은 대개 소방시설의 미비니 부실공사니 부주의니 하는 많은 취약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평상시에 항상 주의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면 그 많은 불행은 급격히 줄어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내자신의 그동안의 무심했던 태도를 반성해 보기도 했다.

그날저녁 저녁상을 물리고 나는 낮에 들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려주었다. 한동안 남편은 생각에 잠기는듯 하더니 말이 없었다. 다음날 물건을 사러나갔던 남편이 소화기를 들고 들어왔다.

“침계천에 나간 김에 사왔지, 불이란 놈이 만일 우리집을 공격한다면 일격에 퇴치하려고 말이야.”

“여보, 화재보험은요?”

내가 묻는 말에 그녀는 멋지게 웃으며 말했다.

“버릴써 가입하고 왔어.”

“정말 잘 하셨어요. 화재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항상 불조심을 철저히 해야겠어요. 당신도 불은 겁이 나시나 보죠? 어제는 그렇게도 완강히 거절하시던 분이 손수 가입을 하시다니요?”

내가 반놀림으로 이렇게 묻자 그녀는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야, 당신이 과부될까봐 그런거지.”

우린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